



## 찬기파랑가(讚者婆郎歌) 어석고(語釋考)

---

저자 (Authors)	권재선
출처 (Source)	<a href="#">국어국문학 89</a> , 1983.5, 81-86 (6 pages) <a href="#">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89</a> , 1983.5, 81-86 (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국어국문학회</a>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3267">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3267</a>
APA Style	권재선 (1983). 찬기파랑가(讚者婆郎歌) 어석고(語釋考). 국어국문학, 89, 81-8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4 11:1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讚耆婆郎歌 語釋考

權 在 善\*

## I. 方法論

1. 讚耆婆郎歌의 表現方法은 다른 同類의 鄉歌表現法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佛教 內容의 鄉歌나 佛教詩歌의 修辭法에 依據해서 考察함이 바람직하다.
2. 鄉札表記法은 비록 漢字를 借用한 것이기는 하지만 特殊한 鄉札表記字가 使用되고 慣用化하였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特殊한 鄉札表記字 使用與否를 檢證하여야 할 것이다.
3. 「三國遺事」에 收錄된 鄉歌는 여러번 轉寫되어 온 것이므로 誤寫나 脫劃이 있을 수 있다.

## II. 語 釋

(첫 句의 語節分析)

咽鳴爾 處米露 曉邪隱 月羅理

cf. 爲尸知 國惡支 持以支 知古如 後句(安民歌)

覺月 明斤 秋察羅 波處也 (請轉法輪歌)

咽 鳴

鳴咽의 到置

爾

音借, 主格助詞

---

\* 大邱大, 國語學專攻.

**處米麗**

音借, 티밀오(티밀+오<第一副詞形語尾>)

- cf. 波處也(바티여)
- 추밀다(癸丑 p.118)
- 티밀다(太平-4)

**曉邪隱**

흠 ㄹ (<흠訓>+ㄹ<他動詞化接辭>+ㄴ<冠形形語尾>)

**安支下**

音借, 안ㅁ하(안<心中>+ㅁ<連接促音>+하<呼格助詞>)

「支」는 特殊鄉札字, 「學支」 등의 略字, 「ㅎㅁㅁ」音 表記

**沙是八陵隱**

音借, 새ㅍ문, 새+ㅍ문다(複合語)

- cf. 沙(물개~모개) 蚊川橋 <沙川俗云牟川又蚊川又橋名榆橋也>(元曉不羈)
- 沙: 牟(모)
- 蚊(모키)

**江 理**

江理의 誤寫, 나리(江, 川) < 나뵤(江)  
나리(川) >

- cf. 가람(江)~걸(小川)
- 개(浦)~개울(小川)
- 배(川)~사내(小川)

**是史蕤邪**

音借, 이시슈라(이시<有>+슈라<感嘆語尾>)

- 有 { 이시(子音 앞) — 잇 — 잇
- 이시(母音 앞) — 이시 — 잇

逸 烏

遠烏의 誤寫, (멀<遠>+오<副詞形語尾>)

川理叱磧

나릿밭(熟語)

cf. 갯밭(浦口沙場)

惡 希

音借, 아히(處格助詞)

cf. 法界惡之叱佛會阿希  
衆生叱海惡中

持 以 支

더니ㅎ(더니<訓>+ㅎ<促音>)

如賜烏隱

音借, 녀샤온(녀<行>+샤<尊稱補助語幹>+오<插入母音>+ㄴ<冠形詞形語尾>)

高 支 好

높ㅎ호<높ㅎ오(높<高>+오<副詞語尾>)

雪 伊

눈이(눈<雪>+이<主格助詞>)

毛 冬

音借, 모도(모드<集>+오<第一副詞形語尾>)

乃 乎 尸

爲乎尸의 表記, 드키울(드키<爲>+오<插入母音>+ㄴ<冠形詞形語尾>)

爲→乃(爲의 草書略形)→乃(乃와 비슷한 字)

花 判

訓, 꽃마루(꽃가루)

Ⅲ. 通 釋

嗚咽이 치미로 붉은 드물이 흰 구름 좃아 떠가는 안고하

cf. 覺月明斤秋察羅波處也(請轉法輪歌)

(嗚咽이 치밀어 밝힌 覺月(覺者—耆婆)이 흰 구름 좃아 떠가는 마음이어)

새 폰톤 나리여런 耆郎의 좃이 이시슈라

cf. 月印千江

(새파란 내에 耆郎의 모습(달)이 있구나)

멀오 나릿별아히 郎여 더니고 녀샤은 마음인 즘훈 좃아져

cf. 際于萬隱德海勝 閻王多留讚伊白制(稱讚如來歌), 마음~德海

(멀리 냇벌에서 郎아 지니고 가시는 마음(가 없는 德海)의 끝을 좃고 싶으오)

아아 자깃(栢)가지 높이 눈이 모도 드림을 꽃마루여

cf. 菩提叱菓音烏乙反隱 覺月明斤秋察羅波處也(請轉法輪歌)

(아아, 잣 가지 높이 눈이 모이여 필 꽃가루여(눈이 모이여 필 꽃가루 같은 은빛 달빛(教化)이어)

Ⅳ. 作 家

1) 地福의 說話

京師萬善北理 有寡女不夫而孕 既産年至十二歲 不語亦不起 因號地童  
<下或作地卜 又巴 又伏等 皆言童也> 一日其母死 時元曉住高仙寺 曉見之  
迎禮 福不答拜而曰君我昔日馱經犂牛 今已云矣 借葬何如 曉曰諾 遂與  
到家令曉布薩授戒 臨尸祝曰莫生兮其死也苦 莫死兮其生也苦 福曰詞煩  
更之 曰死生苦兮(地福不言)

「她」를 「蛇」의 俗字로 보고 訓하던 다음과 같다.

蛇 福

리얌보

① 「她福」을 「리얌보」의 表記로 보던 鄉札表記法(助辭表記法)에 맞지 않음.

리얌보

她岩福

cf. 獸觸<或作異次或云伊處方音之別也譯云獸也觸頓道觀獨等隨書者之使乃助辭也今譯上不譯下故云獸觸又獸觀等也(獸觸減身)

② 국어 造語法에 어긋남.

얼굴이 푼다~곰보(用言+보)      여우~\*여우보

귀가 먹다~먹보      소~\*소보

질질 짜다~짤보      리얌~\*리얌보

입술이 찌지다~찌보

③ 鄉札表記上 上字의 異形態가 없다.

그러한 경우는 表記字의 音과 訓이 同一한 경우

蛟 福 { 訓—기보  
          音—기보

「她」는 「蛇」의 俗字가 아니고 「蛟」의 鄉札字임.

2) 耆婆郎과 她福은 同一名稱表記의 異形態

① 「蛟」는 實際筆記에서 「她」로 變形될 수 있다.

弥→弥→拈

力→力→尸

蛟→蛟→她

cf. 慈遊之驚曰此弥勒仙花也 乃就而問曰郎家何在願問芳氏郎答曰我名未尸 兒孩時爺孃俱沒未如何姓說者曰未與弥聲相近 尸與力形相類乃託其近似而相連也(彌勒仙花)

② 耆婆=蛟巴=기보

③ 「她巴」는 羅代佛徒들이 존경하던 實存僧侶이다.

東京與輪寺金堂十聖

東壁坐庚向泥塑 我道 獸觸 惠宿 安舍 義湘

西壁坐甲向泥塑 表訓 蚶巴 元曉 惠空 慈藏

④ 嗚咽이 치밀어 覺者가 된 歌意와 一致

⑤ 解釋上의 妥當性

香婆郎(기보郎)  
첩이

香郎(기보)

cf. 外家집, 驛前앞

\*香婆의 略稱「香」는 不可

cf. 她福의 略稱은「福」

咽嗚爾處米 露曉邪隱月羅理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香郎矣兒史是史蔽邪

逸烏川理叱磧惡希 郎也持以支如賜烏隱

心未際叱勝逐內良齊 阿耶 栢史叱枝次

高支好 雪是毛多乃乎尸花判也